

## ‘누에고치 컬러 염색기술’ 첫 개발

웰빙 소득작목으로 부상하고 있는 누에고치 컬러 염색법 등 새로운 기술개발에 따라 고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된다.

전남도 농업기술원 김종선(53) 연구팀은 3년여의 연구 끝에 염료를 이용한 ‘누에고치 특수 염색법’ 등 특허 3건과 ‘누에고치를 이용한 전구다발·장식풀’ 등 의장(디자인) 등록 7건을 출원했다.

이번에 출원한 특허기술은 ▲누에고치 특수염색 방법 ▲누에고치를 이용한 장식용 전구 캡 제조방법 및 전구 다발 ▲누에고치를 이용한 걸이용 장식라인 제조방법 및 구조 등 3건이다.

또 누에고치를 이용한 전구다발과 목걸이·장식풀을 비롯 병아리·닭·펭귄·물고기 등 7건의 장식용 소품 디자인을 개발했다.

특히 누에고치를 이용한 장식전구는 지난해 10월 열린 ‘제5회 대한민국 농업박람회’에 선보여 관람객들의 호평을 받기도 했다.

전남도 농기원, 특허 3건·의장등록 7건 출원

목걸이 등 장식용 소품 제작… 새 소득원 기대



누에고치로 목걸이와 전구용 캡 등 실생활에 필요한 장식용 소품 제작이 가능해 독점적 기술로 기대되고 있다. 사진은 컬러 누에고치를 원료로 제작된 펭귄·닭·물고기 등 다양한 장식용 소품.

민국 농업박람회’에 선보여 관람객들의 호평을 받기도 했다.

이번 신기술 개발에 따라 고부

로 양잠농가의 소득증대가 기대된다.

합성섬유 보급과 저가의 중국산에 밀려 사양길에 접어들었던 국내 양잠은 최근 웰빙 일풍에 힘입어 누에분말과 뽕잎을 이용한 건강식품과 화장품 등이 시판되면서 재배 면적이 다시 늘고 있다.

전남도 농업기술원은 이번에 개발된 기술을 관련 산업체에 이전, 컬러 누에고치를 지역 명품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농기원은 또 뽕잎과 오디, 실크 등 양잠산물을 이용한 기능성 식품과 신상품 개발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한편 전남지역은 화순 이서, 순천 주암 등 405농가에서 누에를 치고 있으며, 뽕밭 면적은 161ha로 전국(1천5ha)의 16%를 점유하고 있다.

/송기동기자 song@



### 목재계단 밟고 두륜산 가련봉 오르세요

해남군이 두륜산 도립공원 가련봉(703m) 암벽 일부 구간의 철재 계단을 환경친화적인 목재계단으로 교체했다. 해남군은 올해 등산객의 안전을 위해 두륜산 도립공원내 등산로에 대해 지속적인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해남=박정옥기자 jopark@

## 대규모 스포츠 대회 잇단 유치

### 해남군,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해남군이 새해 들어 대규모 스포츠 대회를 잇달아 유치하며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해남군이 현재까지 유치를 확정한

대회는 ‘2007 현대캐피탈배 전국 대학 배구 춘계대회’를 비롯해 모두 5개에 달한다.

또 ‘2007 코리아내셔널리그 선수

권’ 등 3개 대회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유치가 확정된 주요 대회는 다음달 24·25일 이틀간 22개팀 700여 명이 참가하게 될 ‘제 2회 전라남도지사기 생활체육불링대회’를 시작으로 ▲제 36회 소년체전 전남축구 예산전(3월 25일~28일, 22개팀 800명) ▲제 43회 춘계 한국고등학교 축구 연맹전(4월 3일~13일, 50개팀 1천800명) ▲2007 현대 캐피탈배 전국 대학 배구 춘계대회(4월 5일~11일, 17개팀 550

명) 등으로 3~4월에 집중돼 있다.

해남군은 지난해에도 탁구와 축구 등 전국대회유치를 잇달아 성공시키며 지역 이미지 흥보는 물론 50여개의 경기부양 효과를 거두기도 했다.

해남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규모 스포츠 대회 유치에 앞장서는 한편 해남을 찾은 선수단이 최상의 컨디션으로 경기에 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남=박정옥기자 jopark@

### “사랑의 쌀 전달로 나눔 경영 실천”

농협 나주시지부

(지부장 나승운) 여직원들

이 최근 사회복지법인 ‘나주시노인실버요양원’을 방문, 쌀 20kg 10포대를 전달하고 소외된 노인들과 사랑의 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사진)

나주시지부는 정해년 한해를 ‘나눔 경영 실천의 해’로 정했다.

시지부는 앞으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과 주변 이웃들을 돋는



‘나눔경영’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나주=정철현기자 chjung@

### 담양 시가문화촌 새이름 지어 주세요

郡, 다음달 9일까지 공모

담양군이 담양읍 운교리 일원에 조성 중인 가칭 시가문화촌의 새 이름을 공모한다.

군은 운교리 일대 3만여평에 전통 한옥체험장과 의병장 고경명의 기병지인 추성관, 정자와 소리 전수관인 우승당 등 지역에 있는 문화유적의 모형을 설치한 시가문화촌을 조성 중이다.

군은 올해 까지 주요 시설물을 완공하고 2010년 까지 단계적으로 조성사업을 마칠 예정이다.

군은 소쇄원을 중심으로 한 남

면, 고서면 일대를 지칭하는 ‘시가문화촌’과 일시로 사용하고 있는 ‘시가문화촌’이라는 명칭이 훈동의 우려가 있어 새 이름을 공모로 했다.

응모기간은 다음달 9일까지며 군 홈페이지(www.damyang.go.kr)에 있는 응모제안서를 다운받아 홈페이지 참여마당 ‘제안합니다’ 코너와 우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심사위원회에서 뽑힌 당선작과 우수작,佳作 등에게는 소정의 상금이 주어진다. 문의 (061) 380-2814~5.

/담양=차재희기자 jhwha@



### 함평 반달가슴곰 관찰원 내달 개장

지난해 12월 휴장했던 함평군 대동면 자연생태공원내 반달가슴곰 관찰원이 다음달 3일 문을 연다. 자연생태공원에는 지난 2005년부터 13마리의 반달가슴곰이 사육돼 방문객들에게 색다른 볼거리로 제공해 왔다.

/함평=박영진기자 pyj407@

## 고창 심원면 등 피해보상 촉구

### “피해조사도 행정기관이 맡아야”

고창 지역 어폐류 양식어민들이 영광원전 5·6호기 가동과 관련된 광역 해양조사가 잘못됐으며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고창 어폐류협의회(위원장 김병욱)는 지난 15일 성명서를 통해 “2001년 12월 26일부터 2005년 8월 31일까지 실시한 영광 5·6호기 가동에 관한 광역해양조사가 부실하게 이루어져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어민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국 최대 바지락 생산지인 하전, 만월, 용기 등 삼면일대 일대를 비롯해 상포, 후보, 선운 등 아산면, 흥덕면 일대 어촌계 8곳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이들 지역에 대한 광역해양조사가 다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창군은 “그동안 영광원전 피해지역 기준이 원전에서부터 17.6km(공유어장 18.6km)로 규정해 이를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고창군 관계자는 “고창군 범위와 영광원전의 합의에 따라 해당 지역은 피해조사와 보상규정에서 제외되어 있어 현재로서는 피해보상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영광원전 가동으로 인한 고창 지역 피해 보상은 최근 5·6호기 보상금 763억원을 포함해 총 1천283억원이 지급됐다. /고창=김준원기자 jwkim@



## 연료비가 횡기적으로 절감되는 난방 ‘깔레오’ 원적외선 필름난방이 책임집니다.

난방비용이 횡기적으로 절감됩니다.

원적외선 필름난방은 고온을 복사열 난방방식이기 때문에 연료비가 횡기적으로 절감됩니다.

원적외선을 방사하므로 편안합니다.

필름난방에서 방출되는 강력한 원적외선 에너지는 우리 몸 내부를 먼저 따뜻하게 하여 혈액순환을 좋게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쉬운 난방공사

반도체 드링기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깔레오 필름난방은 정밀 사용하여 즉시 사용할 수 있는 매우 쉬운 난방공사를 실현합니다.

인체에 유해한 전자파 안심하세요.  
티제품 열선대신 탄소면상발열체  
사용으로 전자파 제로

대리점 및 취급점 모집



TEL.(062)262-0101

## 유해조수 구제, 멧돼지 잡는 공기총 출현



최신형 신제품 최고 위력(공기저장탱크 500cc)을 갖춘 공기총을 국내 최초 시판합니다.

연중 개인소지 및 자유보관 가능  
호신용 장비 연중 전시 판매

최신형 각종 충전형 처음으로 판매가격 정찰제 실시/카드 소지자 할부 협약

계림총포무역  
(062)522-0077, 529-7988  
광주광역시 북구 충정동 643-20(구시청 앞)



(주)태양상사 광주광역시 동구 산수동